(2007. 5. 22, 기획과제 최종보고서,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)

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

우리 경제가 급속히 글로벌화 됨에 따라 **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**을 '06. 9월부터 전문가 T/F를 구성하여 작업해 왔는 바, 그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.

〈핵심 요약〉

1.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통합적 인식의 필요성

□ 외국인직접투자(IFDI)와 해외직접투자(OFDI)가 함께 활성화될 경우, **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글로벌화로 인한 시너지효과 창출**

○ **기업 측면에서** 기술경쟁력 향상,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, **산업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**

□ 우리는 **IFDI와 OFDI가 균형을 이루는 단계에 진입 중이므로 양자를 통합적 시각에서 인식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**

○ **IFDI와 OFDI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경우**, 反외자정서, 산업공동화 등 IFDI와 OFDI에 대한 **부정적 시각을 극복 가능**

2. 우리나라 국제직접투자의 동향 및 평가

□ '90년대 이전에는 규제로 인해 OFDI와 IFDI가 모두 미흡했으나, **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IFDI 유입이 급증**

○ **IFDI의 절반 이상이 유통, 금융 등 서비스업**(55.4%)으로 유입되고, **OFDI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**(53.8%)에서 발생

□ **경제규모에 비해 국제직접투자의 절대규모는 미약**

○ 한국의 '04년 투자유치잠재력은 세계 17위, 투자실적은 세계 114위 기록

* 해외직접투자 지수(세계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비중/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)은 59위로 말레이시아, 대만, 러시아보다 미흡

○ **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, 그 성과는 미흡**

3.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

1 전략적 목적의 M&A 활성화

○ **원천기술 획득, 전략적 제휴, 자원확보 등을 위해** 높은 외환보유고·유동성, 원화강세 등의 여건을 활용한 **M&A 활성화 필요**

* M&A형 IFDI는 증가(44%)하고 있으나, 우리 기업의 M&A형 OFDI는 미미(9.5%)한 실정('05년 M&A형 투자 : (중국) 53억불, (한국) 4.5억불)

⇒ 사모펀드 활성화, 해외진출 관련 규제(금융, 관광 등) 완화, M&A 인프라(정보, 인력, 컨설팅, 세제) 지원 등을 통해 **전략적 M&A 촉진**

2 산업별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전략 추진

○ **규제완화, 적극적 시장개방 등을 통해** 유통, 의료, 교육 등 **서비스업 분야의 양방향 국제직접투자를 활성화**

* 대형할인점업 이외의 분야에 남아 있는 유통산업 규제 완화, 경제자유구역내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, 동남아 지역의 금융기관 인수 등을 추진

○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**산업별 FDI 타겟팅 전략 수립**

- (자동차) **M&A 방식의 IFDI를 유치**해 부품업체의 R&D 역량 강화
- (전자) 기술집약적 IFDI 유치 및 **부품업체의 동반진출(OFDI) 확대**
- (기계) 선진국 기계류 전문기업에 대한 **M&A 방식의 OFDI 추진**
- **(자원) 자원개발과 경제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거래 확대**

3 국제직접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

○ **우수대학을 유치**하여 **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**하고, 단계적 영어공용화 방안 검토 등을 통하여 **국내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**

○ **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**하고 국제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**기존규제를 과감히 철폐**

4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시스템 개선

○ 외국인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해외직접투자도 촉진될 수 있다는 인식* 등 **국제직접투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**

* LG필립스LCD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파주를 세계 최대의 LCD클러스터로 변모시켰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에 공장을 설립해 유럽시장을 공략

○ **국제직접투자 지원기관간 통합적 네트워크**(정보, 인력 등)**를 구축**

(2007. 5. 22, 기획과제 최종보고서,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)

I. 검토 배경

□ FTA 체결,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 등으로 향후에는 무역뿐만 아니라 양방향 **국제직접투자*가 더욱 중요**해질 전망

* 국제직접투자(Foreign Direct Investment) : 외국인직접투자(IFDI: Inbound FDI)와 해외직접투자(OFDI: Outbound FDI)를 통칭하는 개념

□ 우리나라의 투자정책은 외환위기 직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, **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에 초점을 두고 추진**

○ 그러나, **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 양자를 통합적 시각에서 인식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**

* 우리나라는 IFDI와 OFDI가 균형을 이루는 단계에 진입 중이며, 따라서 IFDI와 OFDI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중요

□ 이에 우리나라의 국제직접투자 현황을 산업별·국가별로 평가하고, **「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」**을 모색

(일본)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수지 증가를 도모하여 **과거의 輸出大國에서 향후 投資大國으로의 전환 선언**('06년 통상백서)

II.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

□ 외국인직접투자(IFDI)와 해외직접투자(OFDI)가 함께 활성화될 경우, **기업 및 산업 측면에서 글로벌화로 인한 시너지효과 창출**

○ **(기업 측면)** 기술경쟁력 향상,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

(사례) **LG필립스LCD**는 외환위기 당시 16억 달러를 IFDI로 투자, 파주 일대를 세계 최대의 LCD클러스터로 변모시켰으며, 최근에는 폴란드에 OFDI를 통해 현지공장을 건설함으로써 급성장하는 유럽의 LCD 시장을 공략

○ **(산업 측면)** OFDI를 통해 저부가가치 기술·일자리가 나가고, IFDI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·일자리가 들어와 **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**

(사례) 우리의 **자동차산업**은 독일의 보쉬 등 선진부품업체들이 IFDI로 들어오는 한편, 완성차 업체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OFDI를 통해 미국, 유럽, 중국 등에 진출함으로써 **국제분업 체제를 강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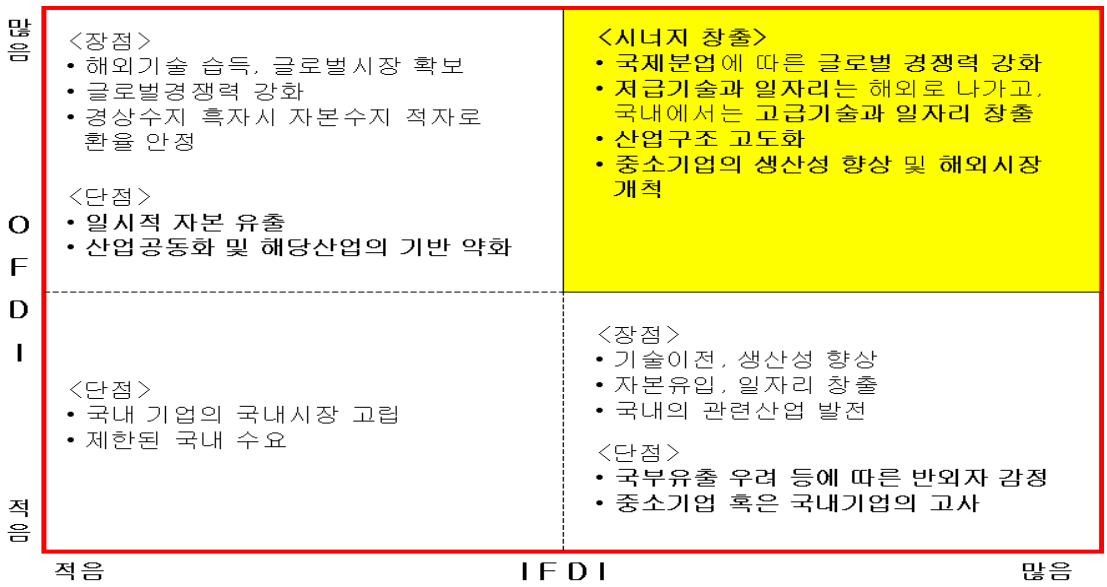
□ **IFDI와 OFDI가 균형적으로 활성화될 경우,** 산업공동화, 反외자정서 등 IFDI와 OFDI 어느 한편에 대한 **부정적 시각을 극복 가능**

○ **IFDI를 유치하면** 고용이 증대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**산업공동화, 일시적 자본유출 등 OFDI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**

○ **OFDI로 해외에 진출하면**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어 **장기적으로 자본수지가 개선됨으로써 IFDI에 대한 反외자정서도 극복 가능**

⇒ 따라서 **OFDI와 IFDI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** 경제전체적으로 **국제분업에 따른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**

< 국제직접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시너지효과 >



□ **개방을 통해 선진국이 된 영국, 네덜란드, 스웨덴 등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OFDI와 IFDI를 최대한 활용**

* FDI **발전경로이론**에 따르면, 한 국가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주로 IFDI를 받아 들여 성장하다가,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OFDI가 급격히 증가, 결국에는 양자가 비슷하게 되거나 OFDI가 IFDI를 약간 초과하는 패턴을 보임

Ⅲ. 우리나라 국제직접투자의 동향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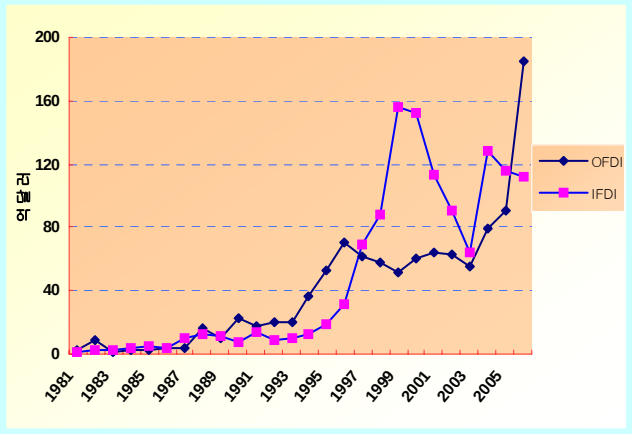
1. 동 향

□ '90년대 이전에는 규제로 인해 OFDI와 IFDI가 모두 미미했으나, **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IFDI의 유입이 급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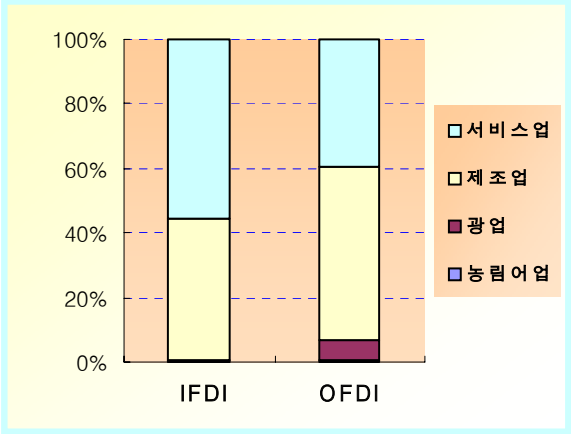
○ 최근에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로 **OFDI가 185억 달러를 기록하여 IFDI**(112억 달러)**를 초과**('06년 신고기준)

○ (산업별) IFDI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(55.4%)으로 유입되었고 OFDI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(53.8%)에서 발생

< 국제직접투자 추이 >



< 산업별 IFDI와 IFDI >



○ (국가별) IFDI는 미국, EU, 일본 등 선진국에서 유입된 반면, OFDI는 중국, ASEAN 등 개도국과 미국에 주로 투자

2. 평 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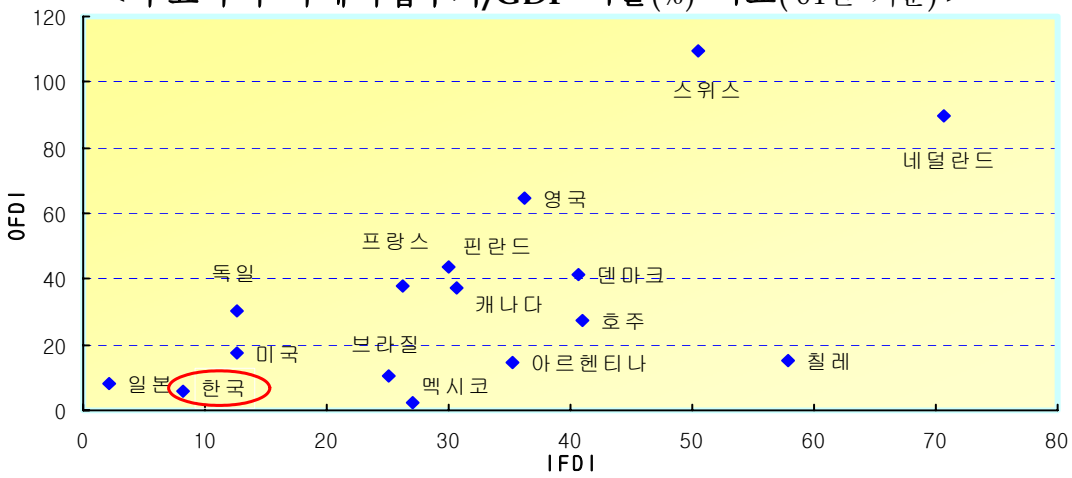
□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직접투자의 절대 규모가 미약하며,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함

* 한국의 FDI/GDP 비중('04년 기준) : (IFDI) 8.2%, (OFDI) 5.8%

○ 한국의 '04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잠재력은 세계 17위, 투자실적은 세계 114위 기록(UNCTAD)

○ 해외직접투자 지수(세계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비중/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)은 59위로 말련, 대만, 러시아보다 미흡

< 주요국의 국제직접투자/GDP 비율(%) 비교('04년 기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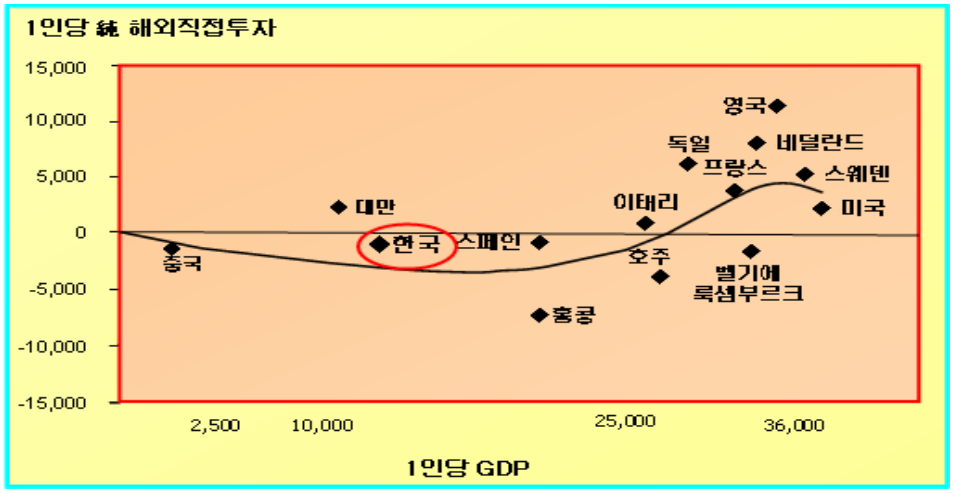


□ 우리의 FDI 패턴은 **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중간단계에 위치**

○ UNCTAD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純해외직접투자(OFDI - IFDI)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

○ 우리의 경우, **IFDI를 통해 경쟁력이 제고된 기업이 OFDI를 통해 해외로 진출**함에 따라 **OFDI가 IFDI에 근접 혹은 초과해 가는 단계**

< 純해외직접투자와 1인당 GDP의 상관관계(단위 : 달러) **>**



□ **국내로 들어오는 M&A형 투자는 증가**하고 있으나,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**M&A형 투자는 미미**

○ 최근 3년간 **IFDI 중 44%가 M&A로 국내에 투자**되었으나, **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공장설립형 투자가 대부분**(90.5%)을 차지

□ **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**하고 있으나, 그 **성과는 미흡**

○ 해외직접투자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중국·베트남 진출 등에 힘입어 증가('01~'05 : 32.4%)하고 있으나 **수익률과 성공률은 대기업에 미흡**

<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비교 >

	대기업	중소기업
해외직접투자 수익률(%)	8	**△1.3**
對중국 투자 성공률(%)	77.1	**44.3**

□ **산업간 FDI에서 산업내 FDI로 점차 발전하는 단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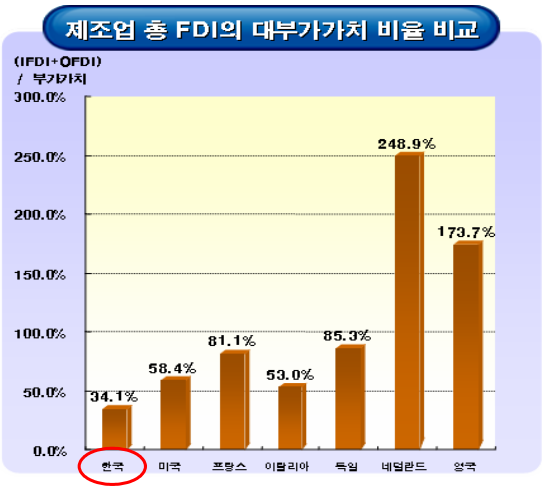
(사례) **전자산업의 경우,** 일본으로부터 전자장비와 부품소재 부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, 한국은 중국의 전자제품 부문에 투자 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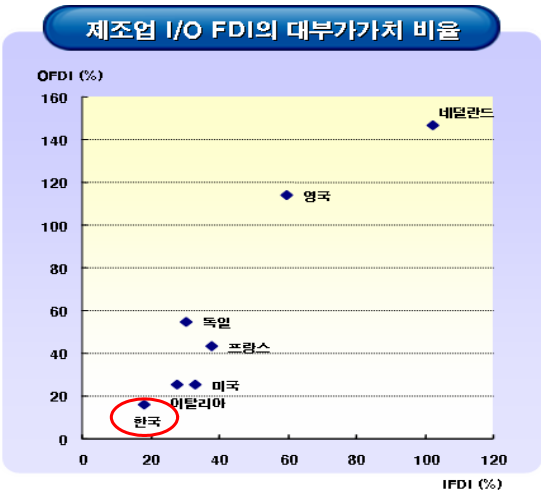
Ⅳ. 국제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전략

◇ 우리나라의 국제직접투자 수준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, **제조업, 서비스업, 1차 산업 등으로** 나누어 분석하고, **양방향 FDI 활성화를 통한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을 수립**

1. 제조업

□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대비 국제직접투자 비율은 **34.1%**('05년말 기준)로 네덜란드, 영국, 프랑스에 비해 미미





□ **[기계산업]** FDI 비율(61.5%)이 미국, 독일,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

○ 그러나, 기계산업의 대형화·전문화, 선진기술·브랜드 획득 등을 위해 **선진국의 기계류 전문기업 M&A를 적극 추진할 필요**

(사례) 두산중공업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영국의 Mitsui Babcock을 인수('06. 11)

□ **[전자산업] IFDI와 OFDI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왔으나, 부가가치 대비 국제직접투자 비율은 42.7%**('05년말 기준)에 불과

○ 향후 **전자산업의 국제직접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병행 추진** 필요

- R&D, 부품소재, 테스트베드로서 국내거점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등 **기술집약적 투자나 고부가가치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**

- 해외직접투자에서 있어서는 FTA 원산지 규정 충족,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**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 통한 글로벌화를 추진**

(사례) 삼광공업은 한국에 진출한 노키아와 함께 멕시코에 진출 후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여 노키아 멕시코 공장에 납품

□ [자동차산업] 세계 5위의 생산국이지만 **글로벌화 수준**(FDI/GDP 비율 : 6.0%)**은 독일**(192.8%), **영국**(164.3%) **등에 비해 매우 취약**

○ 따라서, 외국의 선진 부품기업으로부터 **M&A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**해 **국내 부품업체의 R&D역량을 강화**

(사례) JP Morgan Partners는 만도를 인수 후 선진경영기법 전수, R&D 및 인력개발 투자 확대 등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100대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킴

○ 외국의 우량 부품업체 인수, **국내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동반 해외진출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**

2. 서비스업

□ **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대비 국제직접투자 비율은** 10.6%로 네덜란드(185.9%), 프랑스(85.4%) 등에 비해 **매우 부진**

* 특히, **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**(4.0%)**는 비교대상국가에 비해 크게 저조**

○ **규제완화, 적극적 개방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**하고, **해외진출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**

□ **[유통업]** 서비스업 중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였고, **IFDI와 OFDI가 선순환을 이룬 성공적 분야로 평가**

(사례) 이마트는 미국 프라이스클럽과 제휴하여 선진유통기법을 배우고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후 이를 기반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

○ **시장개방이** FDI 유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**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**

○ 그러나,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으므로 **규제완화, 시장개방 등의 적극적 유치 노력 필요**

□ **[금융산업]**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으로 **외국인직접투자는 확대 추세**이나, **해외직접투자는 매우 부진**('03년 은행의 해외자산 비율 : 2.6%)

* 부가가치 대비 FDI 비율도 31%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218%에 비해 매우 부진

○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**선진금융기관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투자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및 선진화 필요**

3. 1차 산업

□ [에너지·자원 산업] 외국인직접투자는 미미한 반면 **해외직접투자는 자원개발,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**

○ 그러나, OFDI는 네덜란드의 1/9, 프랑스의 1/3 수준에 불과하므로 **활발한 해외투자를 통해 에너지·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**

○ 이를 위해 **자원부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**해 나가고, **자원개발과 경제협력**(플랜트, SOC, IT 등)**을 연계한 패키지 거래 확대**

□ [농축산업] **외국인직접투자는** 다국적기업에 의한 종묘업체 인수를 제외하고는 **거의 없는 실정이며, 해외진출도 성과가 미흡**

○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**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·유치**하고, **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방안도 모색**

(사례) 화훼산업의 경우 품종개발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, 개도국에 대한 투자진출을 통해 화훼를 현지에서 생산

Ⅴ.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

1. 기본 방향

□ **국제직접투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한 投資立國 지향**

○ **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** 별개의 독립된 정책목표를 가진 **서로 다른 정책과제로 인식했던 접근방식에서 탈피**

○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**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동일한 정책목표 설정**

□ **국제직접투자-무역-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**

○ 해외진출(해외직접투자정책) 기업을 통해 **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, 부품·소재 등의 수출을 확대**(무역정책)

○ 고부가가치형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(외국인직접투자정책)해 **산업구조의 고도화**(산업정책)**를 실현**

2. 주요 정책과제

◇ **국제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** ① 국제직접투자(FDI) 활성화 추진전략, ② FDI 친화적 환경 조성, ③ FDI 지원시스템 개선 등 **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되, 중요한 과제만 제시**

1 국제직접투자(FDI) 활성화 추진전략

□ 서비스산업의 국제직접투자 확대

○ 경쟁력 제고, 고용확대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물류, 금융, 의료, 교육 등 **서비스산업의 국제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**

○ 이를 위해 규제완화, 타겟업종 집중지원, 이업종간 동반진출, 현지정보 제공 등을 통해 **서비스분야의 국제직접투자를 적극 지원**

□ 기술습득 등 전략적 목적의 M&A 활성화

○ 높은 외환보유고·유동성, 원화강세 등의 여건을 활용하여 **원천기술 확보, 자원·농산물 개발 등 전략적 목적의 M&A 투자 필요**

○ 私募펀드 활성화,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, M&A 관련 인프라(정보, 인력, 컨설팅, 세제) 구축 등 **M&A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**

□ FDI를 산업별·국가별로 타켓팅하여 추진

○ **산업별 특성이나 발전단계를 반영한 FDI 타겟팅 전략을 수립**

○ 특히, **진출대상 국가별로 유망한 산업분야를 로드맵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공하여** 해외직접투자를 지원

□ 외국인직접투자, 국제개발원조 등과 연계한 해외직접투자 지원

○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가능성 제고를 위해 **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화 노력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**

○ 교육, 의료, 에너지 등 **개도국의 인프라사업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경우** EDCF,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등 **금융지원 강화**

2 국제직접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

□ 글로벌 인재의 유치 및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

○ **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제도를 최대한 자유롭게 정비**하고 **우수대학을 유치하여 창의적·혁신적 글로벌 인재를 유치·양성**

○ 글로벌 인재 양성, 해외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**국내 인력의 해외 진출을 지원** (싱가포르의 Contact Singapore를 벤치마킹)

□ 지역전문가의 체계적 양성

○ 대학(국제대학원)의 특성화 유도,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**해외진출 대상국가의 지역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**

□ 국제지식마을 조성 및 단계적 영어 공용화

○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식의 흐름과 영어 소통이 자유로운 **국제지식마을**(knowledge village) **조성**

(사례) 두바이에서는 지식마을이 15개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글로벌화된 인재 공급

○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**영어공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**하고 학교에서 영어수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**영어사용능력 제고**

* 영어사용능력은 고부가가치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

□ 기술과 규제의 표준화

○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**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표준화**(세계표준을 수용하거나 IT표준을 주도) **필요**

○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 중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 **기존규제를 완화하거나 과감히 철폐**

* 막대한 로열티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화훼산업의 경우,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**신품종 특허권을 보유한 유럽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**

3 국제직접투자 지원시스템 개선

□ 국제직접투자 지원기관간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

○ IFDI와 OFDI에 대한 **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산·중복**

* 외국인직접투자 : 외국인투자위원회, 산자부, Invest KOREA
* 해외직접투자 : 재경·산자부, 중소기업진흥공단, KOTRA, 수출입은행, 대한상의
* 해외지원기관 : KOTRA, 정통부, 문광부, 지자체 등에서 중복 운영

○ 따라서, 통합된 조직, 정보, 인력,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**FDI 전담기관을 운영*하여 IFDI와 OFDI를 통합적으로 지원**

* KOTRA 무역관을 무역투자관으로 개편·운영하는 방안 검토

○ Invest KOREA를 중심으로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**공조를 강화하여 IFDI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과당경쟁 방지**

□ 국제직접투자 통계의 표준화 및 통합

○ 재경부와 산자부에서 상이한 산업분류 및 통계 기준을 가지고 생산하는 **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조정·통합**

□ 총량 위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목표 개선

○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목적으로 **외국인직접투자의 질적 고도화와 국민경제에의 기여라는 산업정책 측면의 패러다임 강조**

○ 따라서, 부품소재산업, R&D 등 산업정책과 부합되는 분야의 **투자유치 건수·금액, 고용창출 규모 등으로 평가항목을 다양화**

* 정부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M&A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에서 제외

□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홍보 강화

○ **국제직접투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**하여 **국제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·이중적 견해를 불식**하고 이해*를 제고

* FDI 정책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성과, IFDI와 OFDI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이 경제 전체적으로 상쇄 가능 등